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Hogye Complex Office

우수작 _ 김지덕 정희원

(주)유신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4-5번지 등 4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4,962.8㎡
건축면적	2,819.79㎡
연면적	10,036.38㎡
건폐율	56.82%
용적률	89.09%
규모	지하 2층, 지상 5층
설계담당	이대희, 김종혁, 배경식, 박진호, 최공은, 정충현, 남윤식, 김윤환

마을의 정자와 사랑방처럼 머물고 쉬고 활용 할 수 있는 무위 공간의 개념으로 전통 공간을 체험 할 수 있고 청사의 권위는 먼 편안한 쉼터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다.

배치 및 조닝계획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있고 각 시설별 운영주체와 사용계층도 다를 뿐만 아니라 이용시간대도 각기 다르므로, 프로그램을 재구성 하여 시설 간 간섭을 피하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정리하였다.

각 시설이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시각적, 기능적으로 인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분리 배치하였으며 수직 수평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었다.

- 외부 공간: 청사의 중심성을 외부공간에 부여하고 다채롭게 활용토록 했고, 광장과 계단, 옥외훈련장, sunken, deck 그리고 옥상정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었다.

- 주민자치 센터: 별도의 동으로 분리하여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접근이 용이하고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민원기능과 주민자치기능을 분리하여 유연한 공간을 만들었다.

- 어린이집: 타 시설과 간섭이 없도록 동선과 장소를 분리하였고, 외부공간은 안전하고 다양한 놀이 체험공간으로 구성하였다.

- 민방위 교육장: 교육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옥외교육장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전통건축의 마당개념을 도입하였다.

-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부방: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통서원 건축의 누각개념을 도입하였다.

- 수영장과 체육시설: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커다란 Sunken정원을 중심으로 각 시설들을 배치하여 시각적, 환경적으로 쾌적한 공간을 만들었다.

- 주차장: 지하 2층에 집중 배치하여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였으며 최대주차대수를 확보하였다. 어린이집 주차장은 지상에 독립시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입면계획

개방적이고 친근한 이미지와 전통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했다. 전면은 열린 공간의 이미지를 표현하였고 그 외의 부분은 기능적이며 휴먼스케일을 느낄 수 있는 재료와 디테일로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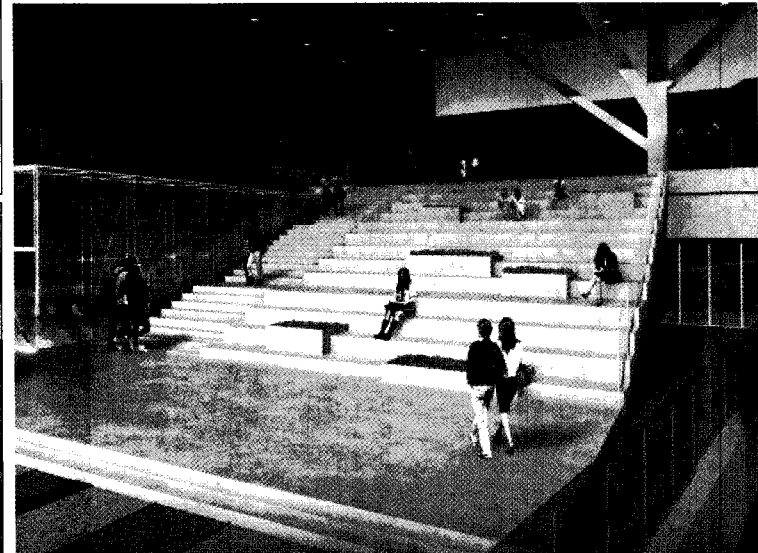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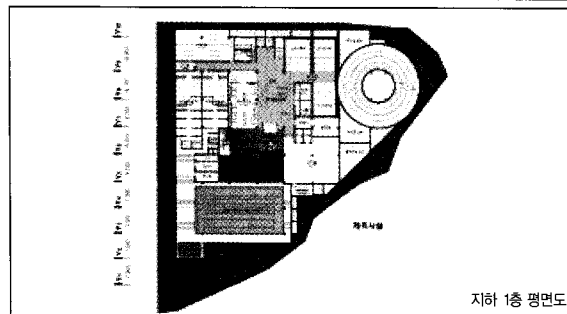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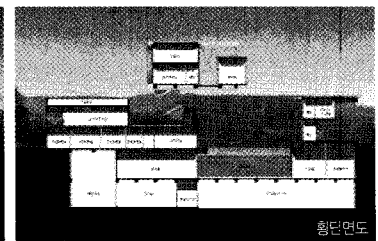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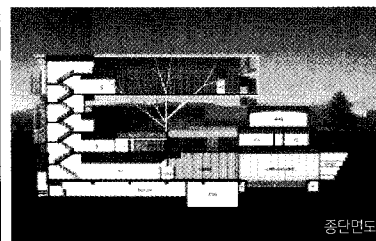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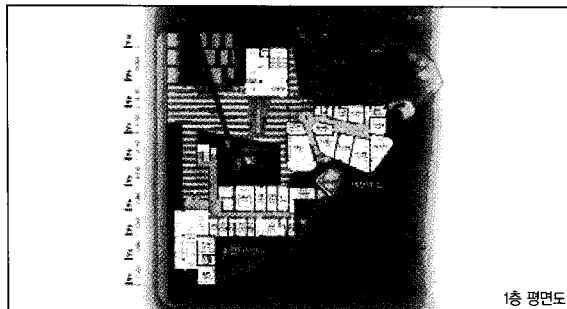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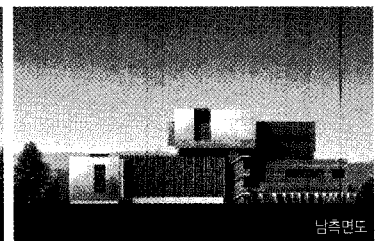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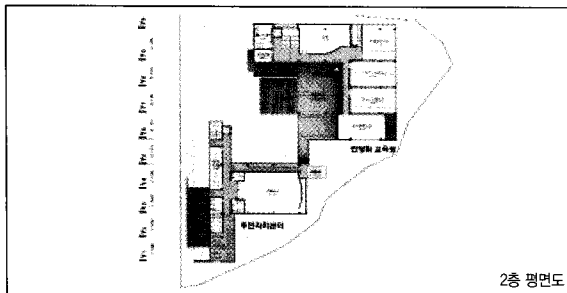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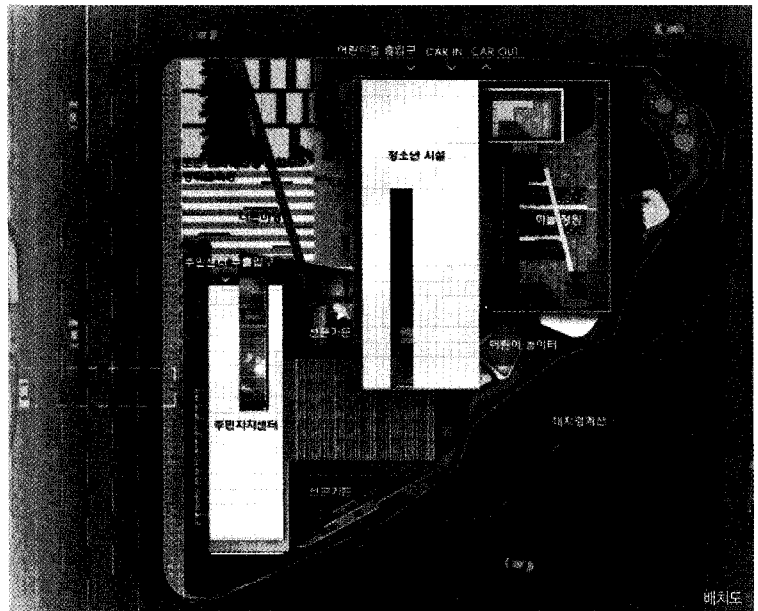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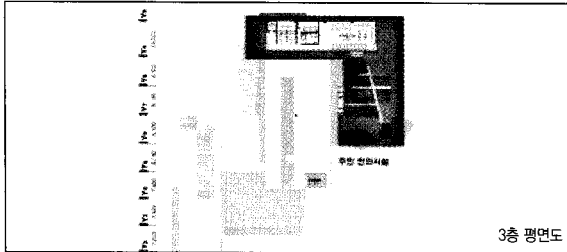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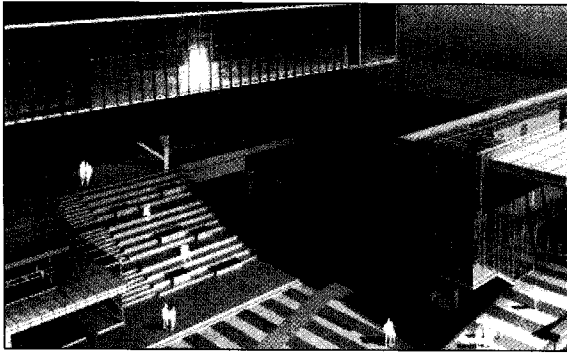
단면계획

시각적 연속성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를 구성 할 수 있도록 단면을 구성하여 전 층을 하나로 묶는 계획을 하였다.

동선계획

- 보행동선: 이용자 상호간 그리고 사용시간대별 간섭이 없도록 수평·수직 동선을 계획하였다.

- 차량동선: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차량동선과 지하주차장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다. ■





안양시 호계복합청사

Hogye Complex Office

가작_ 이관직 정희원

(주)비에스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764-5번지 외 3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주요용도	지역주민센터, 민방위훈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대지면적	4,962.80㎡
건축면적	2,213.32㎡
연면적	10,064.92㎡(지상: 5,077.13㎡ 지하: 4,987.79㎡)
건폐율	44.60%
용적률	102.30%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
설계담당	한웅식, 최유민, 권재영, 김정래, 이상화, 김미순, 김윤수, 한소영, 류희원, 김리태, 김이정

본 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민원과 문화 복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주민 센터와 민방위교육장이 복합된 시설이다. 수영장을 포함하는 종합 피트니스시설과 300석 규모의 중형 강당이 포함되어 있다. 대지는 약 5,000㎡ 규모의 삼각형 모양이다. 대지의 효율과 형태적 잠재력이 삼각형 모양의 조형을 요구하는 듯하다. 그러나 단위 규모가 큰 프로그램이 복합되어 있는 이 건물의 경우 예각으로 만나는 삼각형 대지를 느낌대로 조형으로 가져가면 평면적 구성이 쉽지 않게 된다.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평면적인 모서리를 이용해서 대형 규모의 공간들을 해결했다. 예각으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곡면으로 조절하여 강당과 집회실, 열람실 등 대형 공간을 배치했다.

중정형 삼각형 평면은 외관적인 형태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중정 내부와 가로에서의 공간 조형적 표정에 극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다. 각 층의 평면은 밴드 모양으로 순환적인 구성을 하며, 순환적 동선과 내부와 외부에 계획된 두개의 수직 동선 장치에 의해서 여러 레벨로 분배된다. 사용자는 건물의 모든 곳에서 전혀 다른 공간감을 느끼게 된다. 어느 곳은 돌아가고, 어느 곳은 오른쪽이 트여있고, 어느 곳은 위로 시선이 열린다.

각층에서 만들어져 있는 데크와 브릿지는 사용자에게 채광과 환기를 제공하고 그러한 야외의 장소는 지붕과 캐노피를 통해서 그림자를 가지게 된다. 내부 공간의 다양한 층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단면적인 공간 구성에 반영하고, 그러한 계획이 지붕면의 변화로 나타나면서 접하고, 펼쳐지는 유연한 형태의 옥상정원 공간을 만든다. 옥상 정원에서 주민들은 공원과 휴식과 산책을 할 수 있다. 기능적이고 조형적인 지붕은 녹화되며 건물의 친환경적인 특징이 강조된다.

건물의 입면은 수평성이 강조된다. 우리나라의 천연대리석인 정선대리석은 750mm의 수평 모듈로 나누어져서 강력한 수평 밴드를 구성하고 수평적으로 구성된 창과 함께 디지털흐름의 다이어그램적인 이미지로서 미래적이고 테크놀로지적인 의미가 강조된다.

수평적이고 동글면서 삼각형인 조물의 조형의 공간 구성은 건물의 이용자는 물론 인근의 주민에 시각적으로 새로운 경험을 주게 될 것이다. 동글게 돌아가면서 어느 곳은 넓게 비어있고, 다시 연결되고, 램프와 브릿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35m의 넓은 전면도로에서 차량을 탄 접근자 및 보행자에게도 수평적이면서 입체적으로 밝게 빛나고, 속도감 있는 창과 벽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기존 주변의 풍경과 다르게 새로운 이미지의 조형으로 기억될 것이다. 기존 육교에서 2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평 브릿지를 계획하고 버스 정거장의 주민들과 공간적으로 연결되고 적절히 분리될 수 있도록 게이트형 캐노피를 설치하여 도로 측의 퍼블릭 공간과 청사 측의 프라이빗 공간을 구분한다. ■

